



즉시 배포용: 2024년 10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유방암 인식 제고의 달의 첫째 날을 맞이하여 유방암 스크리닝 및 이미징으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 S.2465C/A.1696C에 따라, 전국 기준을 적용해 유방암 스크리닝 및 이미징으로 보험 보장 범위 확대

유방암 인식 제고의 달(Breast Cancer Awareness Month)의 첫째 날을 맞이하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유방암 검진 지침에 따라 권고되는 절차로 유방암 스크리닝 및 이미징을 포함시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여성은 조기 검진 및 치료의 핵심인 유방암 스크리닝 및 이미징에 대해 보험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주요 예방 서비스를 재정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뉴세로운 진료 기준을 마련합니다."

법안 S.2465C/A.1696C은 보험법(Insurance Law)을 개정하여 HMO를 포함한 개인, 단체, 비영리 의료 보험이 모두 유방암 스크리닝 및 진단 이미징 비용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진료 지침에 따라 의사가 권고할 경우 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스크리닝에는 진단용 촬영, 유방 초음파, MRIs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법안은 또한 IRS 지침에 따라 건강 비용 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공유 대상으로 해당 의료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법안의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진료 지침"에는 독립 단체 또는 의료 전문 학회가 투명한 방법과 보고 구조를 사용해 개발한 증거 기반 기준이 포함됩니다.

Roxanne J. Persaud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법안의 제정으로 우리는 유방암과의 싸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스크리닝과 이미징이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면 사람들은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은 특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법안을 추진해주신 Hunter 하원의원과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Pamela J. Hunt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기준에 따라 보험 보장 범위에 유방암 스크리닝과 이미징을 포함함으로써 뉴욕 전역의 여성들은 조기 발견을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유방암 인식 제고의 달에 제정된 이번 법안은 촬영상, 초음파, MRIs 등 유방암 치료에 필수적인 주요 진단 절차를 비용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저는 하원에서 이 법안을 추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전역의 여성을 위해 법안을 실현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Persaud 상원의원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